



1. 한 기흥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2.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3.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4차 일천번제 특별 새벽기도회(1/22/2024~10/17/2026)
 - 중보기도용사의 밤 및 목자부흥의 밤(10/28, 8:00 pm)
 - 할렐루야 나이트(10/31) - 기독교영화 감상회(11/1, 5:30pm, 친교실)
 - 다민족 연합 기도회(11/2, 4:00pm, VC본당) - 그룹장 모임(11/13)
 - 예손 예배(11/13, 6:00pm, 새가족 환영식)
 - 추수감사 특별새벽 부흥회(11/17~22, 강사: 한기흥 목사)



해답 1.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마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찰스 스펔전 목사님의 예] 담배를 피는 목사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묘사한 이 세상은 5절에서 신앙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한 10절에서 돈에 대한 탐욕으로 믿음에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들을 피하고 대신 따라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따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패하게 만들다', '추격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대상을 끝까지 추격하며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들에게 지지 말고 승리하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 적용 질문 1

- 1)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 2)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세워야 할 영적 습관은 무엇일까?

해답 2. 하나님의 사람들이 좇아야 할 여섯 가지 덕목(11절)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좇아야 할 것, 따라야 할 것들 -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입니다.

1. **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올 바름입니다.
2.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와 행동입니다.
3.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끝까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4. **사랑**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헌신입니다.
5. **인내**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의 본분을 지키는 의지입니다.
6. **온유**는 겸손으로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이란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꺾는다'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한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한 그 자리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야 할 이 여섯 가지 중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압니다. 더 기도하며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로 나를 불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삶을 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추격하며 따라가십시오.

✿ 적용 질문 2

- 1) 6가지 덕목 중에 가장 내가 약한 부분, 또 발전시켜 나가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해답 3.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12절)

12절의 "싸우다"는 단어는 경기장에서 열리는 시합이나 전쟁터에서의 싸움을 말합니다. 운동 경기와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는 모두 대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와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피할 수 없고 대충해서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진리를 위해 싸워 지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담임목사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과 소유한 것을 누리며 즐기며 사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붙잡으라고, 쥐라고, 움켜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삶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즐기고, 최대한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움직이게 만드는 추진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이 보이지 않는 광야 한 복판에서, 주저 않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딤후 4:7에서 그의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결국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 적용 질문 3

- 1)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 2)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기 위해 나는 인생의 결말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기로 결단하는가?